

#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송유*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6. 7. 23(토) ~ 8. 20(토)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규모는 한국에 비해 많이 작은 편이며, 시설은 화장실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괜찮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학교가 대학교만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중, 고등학생들도 다니는 학교이며 수업 들으러 가는 길에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즐겁고 주위 분위기는 항상 활기차고 좋습니다.
수업	수업은 1:1 수업, 소그룹, 대그룹으로 나뉘는데 나뉘는 기준은 처음 보는 시험을 기준으로 반을 나누고 수업 때 쓰는 교재도 성적에 따라 나뉘는 것 같다. 수업방법은 모든 수업마다 다 다르며 수업진행은 교재를 기본으로 하되 선생님들의 재량으로 수업도중 액티비티 활동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일주일에 2개의 에세이를 써야하며, 쓰기 담당 선생님이 두 개를 체크해주시고 금요일 날 최종적으로 오피스에 낸다. 또한 월요일은 단어시험, 금요일은 쓰기, 말하기, 듣기 시험을 본다.
Activity	액티비티는 팍상한 폭포와, 따가이따이, 민도르 섬, 마닐라 투어 이 네가지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마닐라 투어만 갔다. 마닐라 투어는 대그룹 학생들과 선생님 한분이 같이 간다.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필리핀의 유명한 가톨릭성당과 리잘이라는 필리핀에서 유명한 신분을 기하는 곳에도 갔다. 처음에 갈 때는 필리핀의 지하철이라고 불리는 LRT를 탔다. 지하가 아니라 지상으로가는 지상철이다. 기차 외관은 한국이랑 비슷하지만 내부는 에어컨도 안틀어주고 너무나도 더웠다.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필리핀은 건기와 우기 두 가지 기후가 있는데, 8월에는 비가 많이 와서 정말 길이 물에 잠겨서 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비가오니 비가 올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더울 때에는 한국보다 좀 더 덥습니다.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필리핀은 각 건물마다 보안경비원이 있는데 건물 안은 안전한 것 같고, 밖에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를 이동 할 때 항상 소지품을 잘 갖고 다니고 골목이나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해야 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p> <p>하루에 3끼 식사시간이 호스텔 안에 있고 저녁10시에 인원점검을 합니다. 호스텔 옥상에 농구코트와 배드민턴 코트가 있으니 운동을 하셔도 되고 배드민턴 라켓이나 공은 호스텔 1층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밥은 주로 호스텔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으며, 밖에 나갔을 때에는 길거리 음식은 피하고 주로 백화점이나 건물 안에 있는 음식점들을 이용했습니다.</p>
교통	<p>학교는 호스텔에서 1분 거리이며, 교통은 주로 그랩택시라고 한국에서 카카오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주로 그랩택시를 이용했습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공항세	741,350	출국 전 사전 납부
엑티비티비용, 마닐라투어, 선물, 식비 등	600,000	
합계		

#### 5. 출국 전 준비사항

약을 기본적으로 다 챙겨가야 좋습니다. 필리핀은 물이랑 음식이 한국과는 달라서 쉽게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호텔에서 얻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몇 개 챙겨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필리핀이 더욱 나라이긴 하지만 대부분 하루 일과를 교실에서 보냅니다, 교실 안은 항상 에어컨이 켜져 있기 때문에 쉽게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걸칠 옷들을 가져가서 감기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짧은 1달이었지만, 정말 재미있고 보람찬 1달이었다.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많이 아쉬웠었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필리핀을 가고 싶다. 1달 동안 배운 영어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복습을 하며 지낼 것이다.